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28호 [루게 제23280호] 주체99(2010)년 11월 24일(수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룡성 식료공장에 새로 건설된 간장직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룡성식료공장에 새로 건설된 간장직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겸열위원회 위원장인 김국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동지, 홍석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박도춘동지, 최통해동지, 태종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인 문경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주규창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박정순동지, 국방위원회 국장들인 현철해동지, 리명수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공장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하였다. 뜻깊은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때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년말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는 룡성식료공장의 로동계급은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 있다.



공장의 로동계급과 군인건설자들은 어버이장군님의 올해 1월 현지지도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치렬한 돌격전을 벌림으로써 1년도 못되는 사이에 여러가지 고급간장과 가공소금 등 기초식품들과 특색있는 각종 식료품들을 생산하는 현대적인 직장을 건설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감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직장의 기술적특성에 대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첨단설비들로 장비된 간장생산공정, 가공소금생산공정, 고기가루생산공정, 햄생산공정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로동계급과 군인건설자들이 하나의 식료가공공장과 맞

먹는 현대적인 직장을 짧은 기간에 훌륭하게 건설한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선군시대를 대표할수 있는 본보기 직장을 건설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작업장마다에 준비하게 늘어난 CNC화된 생산설비들과 쉬임없이 쏟아져나오는 각종 고급간장들과 각이한 용도에 쓰이는 소금을 비롯한 기초식품들과 여러가지 가공식품들을 보

시고 공장의 로동계급과 군인건설자들이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함으로써 기초식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식료품생산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는데 대해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직장은 건설의 질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고 기술장비상태도 첨단수준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공장을 하나 일떠세워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건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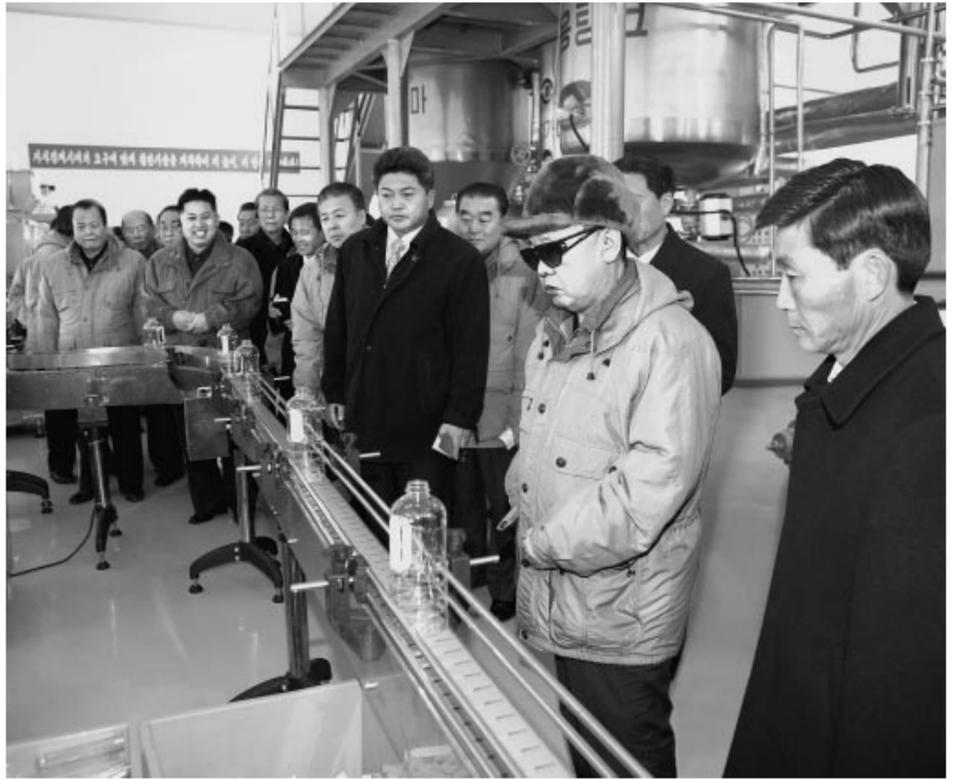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 건설한 직장에서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기초식품인 간장을 전통적인 방법이나 화학적인 방법으로써가 아니라 고분자단백질인 효소를 가지고 생산하는 새롭고 독특한 생산체계를 확립한것은 기초식품생산에서 최첨단을 돌파한것과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직장에서 첨단기술에 의거한 새로운 간장생산공정을 꾸려놓음으로써 지난 시기 콩을 비롯한 알곡을 가지고 생산하는것으로만 알고있었던 간장에 대한 기존관념을 완전히 깨버리고 각종 고기와 물고기에는 물론 송이버섯과 같은 식물을 가지고서도 여러가지 맛을 내는 독특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은 고급간장들을 생산할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는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비상한 창조정신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룡성식료공장에 새로 건설된 간장직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김정일동지께서는 직장에서 최첨단 기술을 받아들여 새로운 가공소금생산공정을 꾸려놓음으로써 절임용, 식탁 및 조리용, 치료용 등 용도에 따르는 각가지 소금들과 맛내기소금, 후추소금, 칼시움소금, 깨소금, 고추소금, 마늘소금, 요드소금 등 여러가지 조미소금들을 생산하여 우리 인민에게 공급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하시면서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공로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룡성식료공장에서 기초식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수 있는것은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며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우리 당의 사상을 높이 받들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과감히 벌려온데 있다고

하시면서 이 자랑찬 전변은 과학기술을 경제강국건설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나갈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룡성식료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과 같이 높은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지니고 우리 당의 최첨단들과사상을 철저히 구현해나간다면 우리의 식료공업도 짧은 기간내에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변을 이룩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끊임없이 비약하고 전진하는 이들의 혁명적인 사업기풍을 거듭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룡성식료공장에 새로 일떠선 이 직장과 같은 생산공정들을 여러곳에 건설하면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다양하고 윤택하게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룡성식료공장은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위한 사업은 물론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에서도 전국의 모범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단위들에서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최근년간 세인을 놀래우는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할수 있는것은 지도일군들이 당의 과학기술증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끊임없이 더 높은 곳으로 비약하려는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약하게 투쟁한데 그 중요한 비결이 있다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 당이 바라는 일군은 우리 인민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기성관념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새것을 창조할줄 아는 일군이 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룡성식료공장에 새로 건설된 직장은 나라의

식료공업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시면서 직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직장의 중요한 임무는 이미 마련된 생산토대에 의거하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 기초식품들과 각종 식료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그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직장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자면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드는 한편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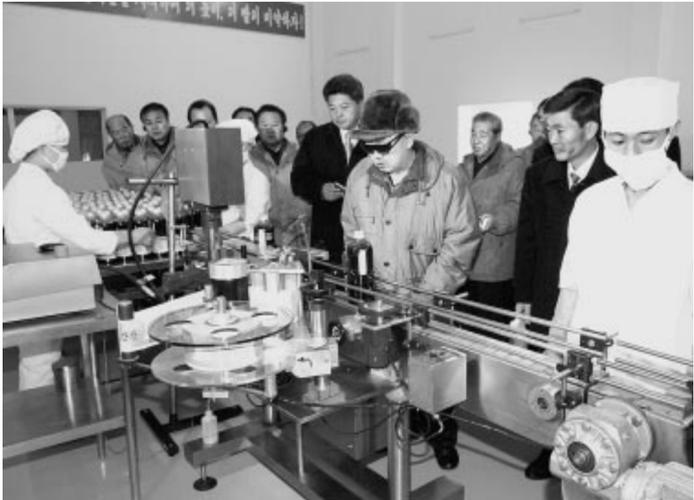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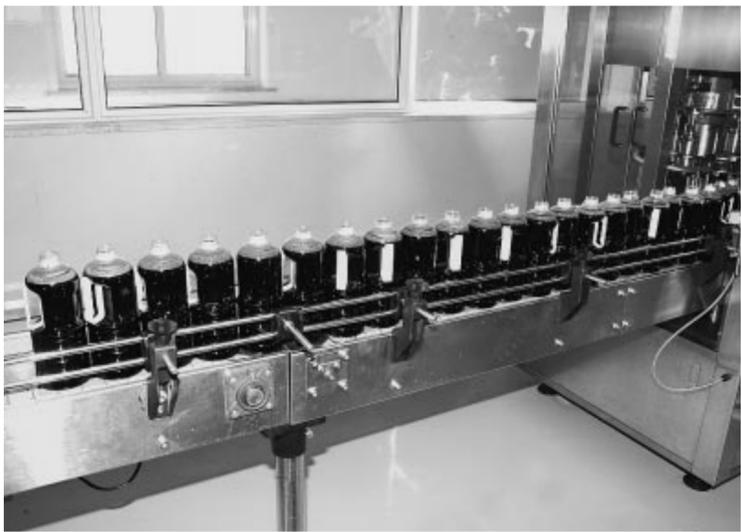
김정일동지께서는 직장에서 고급간장을 비롯한 기초식품들과 각종 식료품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자면련 판단위들에서 원료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주며 경영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룡성식료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식료품생산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함으로써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개척자, 선봉대, 돌파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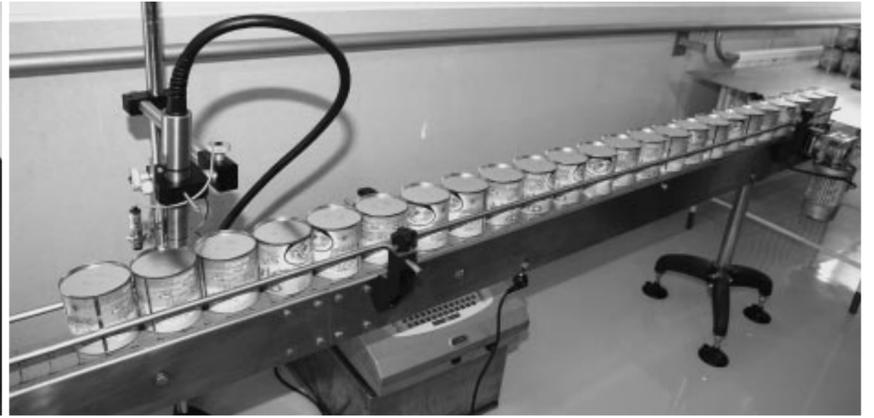
룡성식료공장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들을 잘살게 하시려 불철주야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할 굳은 결의에 넘쳐 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룡성식료공장에 새로 건설된 간장직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룡성식료공장에 새로 건설된 간장직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룡성식료공장에 새로 건설된 간장직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룡 성 식 료 공 장 에 새 로 건 설 된 간 장 직 장 을 현 지 지 도 하 시 였 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겸열위원회 위원장인 김국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동지, 홍석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양건동지, 박도훈동지, 최봉해동지, 태종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인 문경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주규창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박정순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대학의 책임인물들이 맞이하였다. 평양의학대학 교직원, 학생들은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과학과 기술로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에 이바지할 애국의 일념을 안고 힘찬 진군을 다그치고있다.

특히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과학기술은 사회적진보와 발전의 기초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침을 심장깊이 새기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투쟁함으로써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책임인물들의 안내를 받으며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와 함일의 너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여러차례 다녀가신 평양의학대학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는 공로있는 대학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의 자랑찬 력사의 갈피마다에 아로새겨져있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감회깊이 추억하시고 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창립되고 발전하여온 평양의학대학은 오늘 나라의 보건기술인재양성의 믿음직한 기지의 하나로 자라났다고 하시면서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바쳐오신 수령님의 은덕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대학에 전시된 교육과학성과자료들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교직원, 학생들의 고심어린 노력이 깃들여있는 전시품들을 돌아보시면서 교육발전과 의학과학연구사업에서 달성한 성과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교직원, 학생들이 지난 기간 많은 일을 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계속하여 대학의 여러 실습실들을 돌아보시면서 교육실적을 알아보시고 강의와 실습을 밀접히 결부시켜 학생들에게 산지식을 줄수 있게 실습기지를 잘 꾸리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을 돌아보신

다음 대학의 교수교양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양의학대학이 창립후 지난 60여년간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나라의 보건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데 대하여 우리 당은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대학의 졸업생들이 지난 시기는 물론 오늘도 보건부문에서 핵심적역할을 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대학에서 혁명성이 강하고 높은 의학기술을 소유한 유능한 기술인재들을 많이 키워내고 의학과학연구사업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인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월한 인민보건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적 역할을 수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린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십명의 로력영웅들을 비롯한 평양의학대학의 모든 졸업생들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정신을 지니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분투한 참다운 인간생명의 기사가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발휘한 숭고한 희생정신은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미덕의 전통으로 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에서는 우리의 전반적인 의과학기술을 최단기간에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릴데 대한 당의 의도를 언제나 명심하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여 재능있는 의학자들을 더 많이 육성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양의학대학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학생들을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할뿐아니라 인간을 무한히 사랑하는 참된 혁명가들로 키우는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간이 사랑을 떠나서는 존재할수 없는것처럼 보건의 정성은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사회주의 보건의 속성이며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대학에서 정치사상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들을 풍부한 인간애를 지닌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육성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학생들을 시대가 요구하는 유능한 의료인들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교육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며 교육과 실천을 결합시키고 교수방법을 부단히 개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에서 기술수준이 높은 의료인들을 짧은 기간에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해서는 의학리론들을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배워주는 동시에 선진의학기술을 연구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학생들의 수준은 교원들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교직원들이 최신과학기술습득을 비롯하여 자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벌려 더 높은 고지에로 치달아올라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강성대국건설의 총돌격전을 벌리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건

강증진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상정신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유능한 의료인들을 키워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간의 생명을 책임질 의과학자들과 의기술자들을 육성하는 사업을 언제나 심중히 대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술인재양성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교육과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분히 마련해주며 교직원, 학생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크나큰 사랑과 은덕을 베풀어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랜 기간 대학에서 과학연구사업과 교육사업에 전심전력을 다 바쳐 나라의 보건발전에 공헌한 공로있는 교육자들을 만나시여 뜻깊고 고무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무거운 임무를 지니고있는 평양의학대학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는 크다고 하시면서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이 믿음과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평양의학대학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대학에 친히 찾아오시여 의학과학교육발전의 휘황한 진로를 밝혀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부여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를 더욱 빛내어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도반



위 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김 일 성 종 합 대 학 평 양 의 학 대 학 을 현 지 지 도 하 시 었 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우리 군대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

그 무슨 《호국》이라는 북침전쟁연습을 벌여놓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격화시키고있는 남조선피괴들이 우리의 거들되는 경교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11월 23일 13시부터 조선서해 연평도 일대의 우리측 명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무모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였다.

우리측 명해에 쏘아낸 피괴들의 포탄은 무려 수십발에 달한다. 피괴들의 이반 군사적도발은 이른바 《어선단속》을 구실로 피괴해군함정들을 우리측 명해에 빈번히 침범시키면서 남강도적인 《북방한계선》을 고수해보려는 악랄한 기도의 연장이다.

우리 조국의 신성한 명해를 지켜서있는 우리 혁명무력은 피괴들의 군사적도발에 즉시적이고 강력한 물리적타격으로 대응하는 단호한 군사적조치를 취하였다.

도발자들의 불철을 무자비한 불벼락으로 다스리는것은 우리 군대의 전통적인 대응방식이다.

앞으로도 우리 혁명무력은 남조선피괴들이 감히 우리 조국의 명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무자비한 군사적대응타격을 계속 가하게 될것이다.

남조선피괴들은 빈말을 하지 않는다는 우리 혁명무력의 엄숙한 경고를 똑똑히 새겨들어야 한다.

조선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할것이다.

주제99 (2010)년 11월 23일
평양

우리 나라를 방문한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레 유응이아 호志明국가정치행정학원 원장은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을 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빼앗긴 나라를 거어어 찾고야말 굳은 의지를 지니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해방과 부강번영, 인민의 행복을 위한 위업수행에 모든것을 바치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신로동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의 힘에 의

위인의 빛나는 한생

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끄시였다.

그이의 한평생은 위인의 빛나는 한생이다.

우리는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면서 김일성주석은 위대한분이사라는것을 더욱 절감하게 되였다.

전람관에 전시된 선물들은 세계인민들이 그이를 얼마나 열렬히 흠모하고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세계 수많은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과 저명한 인사들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인민의 제부로 되게 하여주시였다.

진정 그이는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였다.

그이의 혁명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그이는 월남인민의 친근한 벗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경애하는 호志明주석과 함께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마련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월남인민의 반미구국항전과 사회주의건설에 아낌없는 지지성원을 보내주시였다.

월남인민은 이를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김일성주석의 혁명위업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세승완성되고있다.

경애하는 주석의 유훈을 받들고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제16차 아시아경기대회 소식

우리 나라 여자배구팀 8강자전에 진출

우리 나라 팀이 제16차 아시아경기대회 여자배구조별전 마지막경기에서 말디브제도를 이겼다.

두 팀사이의 경기가 22일에 있었다.

앞선 조별전경기에서 일본, 인디아, 중국대륙팀을 물리친 기세로 우리 팀은 심심히 넘쳐 경기에 나섰다.

우리 선수들은 경기시작부터 팀의 전술적의도를 잘 살려 타격위치의 부단한 변화로 상대방의 방어에 혼란을 주면서 승승장구하는 면모를 보여 주었다.

2회전과 3회전에서도 우리 팀은 앞선과 뒤선에서의 선수호상간 협동을 강화한데 기초하여 빠른 공격조작에 의한 맹진 타격으로 점수를 올림으로써 25:1, 25:3이라는 점수차이로 경기를 결속하였다.

그러하여 우리 팀은 말디브제도를 3:0으로 이기고 8강자전에 진출하였다.

우리 나라 팀은 24일 타이 람과 대전하게 된다.

한편 우리 선수들은 22일에 있는 남자 2인 10m고정관물에뛰어경기에서 3위를 하였다.

이관영화상영주간 개막

이관영화상영주간이 개막되었다.

개막식이 23일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이관친선협회 부위원장인 전영진 대외문화원 사무국장이 사회의건설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대해 열렬히 축하한다고 말하였다.

조선의 현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생활력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형제적조선인민이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여기에는 라오스주제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비엔티안시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승리만이 있을것이다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강조

최세의 정치리로, 로련한 정치가로 만민의 끝없는 존경을 받고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최고수위에 모시고있으므로 하여 조선로동당이 온 세상에 불패의 존엄과 위엄을 떨치고있는데 대하여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메이코주제사상연구소 블레젠은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을 지도사상이 투철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이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사상이 시대와 혁명의 요구, 인민대중의 리익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새롭고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시였으며 주체사상을 현시대, 자주시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사회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강화를 선포하신 그이께서는 모든 사업들 주석의 구상과 의도, 방식대로 해나가시며 단정설과 활동에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에티오피아신문 《데일리 모니터》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하나의 중심,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조직 사상적결정체로 만드시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단결을 이루하시였다. 그의 특출한 령도력에 의해 조선에는 당과 친만군민의 혼연일체라는 세계정치 사상 류례없는 현실이 펼쳐졌다. 김일성주석의 이면위인의 리념을 그대로 체현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려는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시고 철저히 구현해나가신다고 강조하였으며 파키스탄신문 《발루치스탄 타임스》는 조선로동당이 김일성주석께서 서거하신 후에도 조선인민의 향도적력량으로서의 자기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칠수 있는 비결은 김일성총비서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있다고 평하였다.

로씨야신문 《브리프》는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셔 세기를 이어 백전백승을 떨치는 존엄높은 당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당의 위대성은 령도자의 위대성이다.

김일성주석의 당으로 빛날것인 김일성주석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방식으로 공화국을 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웠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김일성동지들을 당과 혁명의 진두에 모신것이 얼마나 크나 큰 민족적행운인가 하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김일성주석의 당으로 빛날것이며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해 투쟁하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과 비서가 평양시대표단을 만났다

김정일동지께서 당대표자회에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조선인민의 영광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김일성주석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반드시 강성대국을 건설할것이라고 말하였다.

19일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쉐반 나야리히 돈판라 비엔티안시당 비서 겸 시장이 평양시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석상에서 쉐반 나야리히 돈 판라 비서와 평양시대표단 위원회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정부경제무역대표단이 23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교향집을 찾은 대표단 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영광스러운 혁명 력사와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중국의 로세대혁명가들과 함께 마련하여주신 중조친선이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라는것을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중국정부경제무역대표단 만경대 방문

왕화민 상무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정부경제무역대표단이 23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교향집을 찾은 대표단 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영광스러운 혁명 력사와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중국의 로세대혁명가들과 함께 마련하여주신 중조친선이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라는것을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조중 두 나라 정부사이의 경제, 무역, 과학기술 협조 위원회 제6차 회의 진행

회의에는 구본태 무역성 부장, 관계부문 일꾼들과 왕화민 상무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정부경제무역대표단 성원들, 왕치림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경제무역참사가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두 나라사이의 경제무역관계를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비행장에서 강화국 보건성

조중 두 나라 정부사이의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이 23일 평양에서 조인되었다.

조선에서는 우리측에서 구본태 무역성 부장과 관계부문 일꾼들이, 상대측에서 왕화민 상무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정부경제무역대표단 성원들과 왕치림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경제무역참사가 참가하였다.

구본태 무역성 부장과 왕화민 상무부 부부장이 협정문에 서명하였다.

아시아태평양통신사기구 제14차총회에 참가할 조선중앙통신사대표단 출발

평양에서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통신사기구(오아프텔) 제14차총회에 참가할 조선중앙통신사대표단(오아프텔)이 23일 귀국하였다.

중국에서 진행된 조중수력발전회사 리사회 제62차회의에 참가하였던 김만선 전력공업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측 대표단이 23일 귀국하였다.

조선수력발전회사 리사회 제62차 회의에 참가하였던 우리측 대표단 귀국

비행장에서 김봉수 전력공업성 부장과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성원이 대표단을 마중하였다.

【조선중앙통신】